

백두대간 함백산 운해·일출이 어우러진 선계

백두대간의 주능선에 자리하고 있는 함백산은 눈꽃과 상고대, 일출을 감상하려는 등산객이 줄을 잇는 눈꽃 트레킹 명소다. 이상기온 탓으로 순백의 설산, 상고대를 뒤집어 쓴 주목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일출은 장엄했다. 고산준령을 좌우로 거느린 능선 길은 비교적 완만하고, 백두대간의 웅혼한 기상은 골짜기마다 살아 있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이진욱 기자





백두대간과 운해, 일출이 어우러져 경이로움을 연출한다. 초승달만 빛나는 캄캄한 어둠을 이겨내고 첫새벽이 되자 사방이 첩첩 산줄기다. 살을 에일 듯이 날카롭고 세찬 바람이 정신을 쏙 빼놓더니 백두대간 골짜기의 구름을 산 정상 주변으로 모으는 조화를 부린다. 사방이 운해다. 태고의 정적에 잠겨 고요하고 신비롭다. 아직 하늘은 어둑하고, 발아래로 백두대간 줄기와 골짜기, 고한읍이 운해와 숨바꼭질을 반복한다. 이윽고 하늘이 열리고 크고 작은 산봉우리와 서리꽃을 곱게 입은 나무 위로 운해가 바다처럼 펼쳐진다. 삭풍의 칼날을 온몸으로 맞서며 감탄사를 연발하다보니 어느덧 붉은 해가 운해를 박차고 불끈 솟는다. 붉은 기운은 저체온증에 걸릴 것만 같았던 육신에 힘찬 에너지를 채운다.

겨울 산의 백미는 눈꽃과 상고대다. 하지만 지난 1월 초순에는 적설량이 적은 데다 날씨가 포근해 우리나라 5대 설산으로 불리는 함백산(咸白山, 1,572.9m)의 겨울 맛을 조금이나마 느끼기 위해 동이 트기 전 산에 올랐다. 남한에서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계방산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은 함백산은 만항재에서 두문동재까지는 약 4시간, 만항재에서 적조암 입구까지는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적설량이 많고 기온이 떨어지면 시간이 더 걸린다.



함백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정쾌하다. 고봉들이 어깨동무를 하며 겹겹이 들어서 있고, 발아래 펼쳐지는 풍경은 아름다움 그 자체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산다는 주목도 멋진 풍광을 뽐낸다.

백두대간의 고산준령들이 펼치는 파노라마 장관

일출을 감상한 뒤 산행의 들머리인 만항재로 향했다. 우리말로 늦은목이재로 불리는 만항재는 포장도로가 놓인 고개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높다. 백두대간 마루금과 414번 지방도로가 교차하는 1천330m의 고지여서 굳이 산에 오르지 않더라도 순백의 설산이 빚어내는 겨울 정취를 호젓하게 만끽할 수 있다. 최근 백패킹 명소로 떠오른 해도 석탄의 시발점이기도 한 만항재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석탄을 나르던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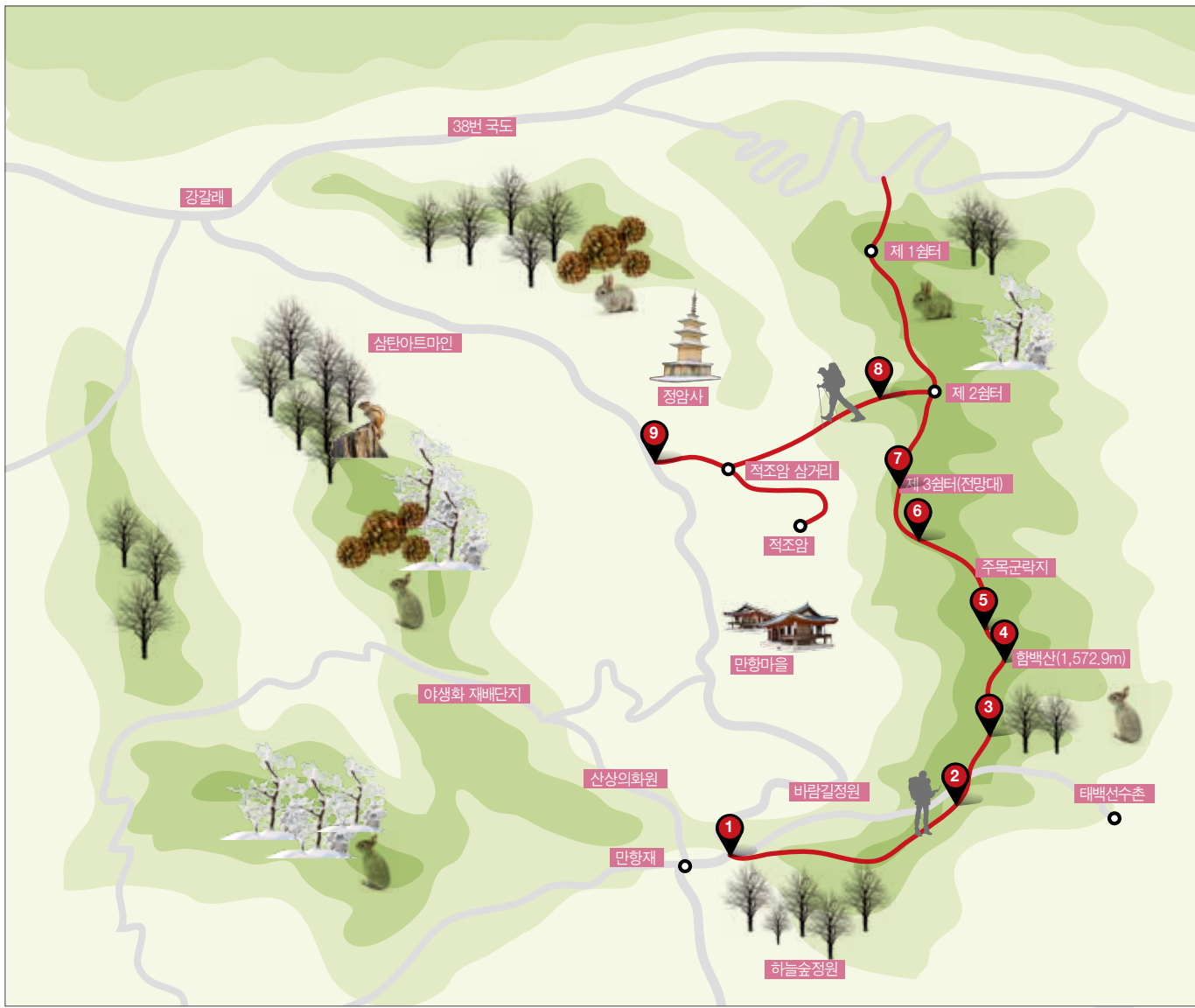
고갯마루에서 태백 쪽으로 100m쯤 아래에 위치한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함백산 정상 등산로 안내판 옆으로 난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등산화에 아이젠을 끼우고 양손에 스틱까지 쥐었지만 이상 기온으로 눈이 그리 많이 쌓이지 않아 이내 아이젠을 풀었다. 완만한 산길은 구불구불 이어지고, 산죽의 잎에만 숨털 옷이 달렸다. 나뭇가지에는 커썬이 쌓인 눈을 볼 수 없고, 나무들 밑에만 눈이 쌓여 있다. 주변의 풍경을 둘러봤다. 기대했던 설산의 바다가 아니라 험준한 산악의 바다다. 다만 창공만이 겨울 산의 상징인 코발트 색이다.

쉬엄쉬엄 걷다보면 '함백산 기원단'이 나온다. 태백산 천제단이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던 제단이었다면 이곳은 민간신앙의 성지였다. 광산을 개발한 시기에는 광부 가족들이 이곳에서 무사안녕을 빌었다. 기원단에서 조금 내려오면 다시 지방도로를 만나고, 도로를 건너면 태백선수촌 삼거리다. 이곳에서 왼쪽의 비탈길은 정상에 위치한 중계소까지 1.8km의 임도이고, 오른쪽은 1.2km의 등산로다. 산길은 밧줄과 계단에 의지해 오르는 가파른 길로 이어지지만 눈도 얼음도 없는 길은 그리 힘에 부치지 않는다. 한 걸음 두 걸음 디더 정상을 150m 남긴 지점에 이르자 사방이 탁 트인다. 만항재 고갯길과 태백선수촌이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인다.

한숨 돌리고 한달음에 '함백산' 표석이 우뚝 서 있는 정상에 올랐다. 표지석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등산객들로 북적거렸지만 백두대간의 장쾌한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동서남북으로 산이 너울을 이루었다. 겹겹이 둘러쳐진 산세가 끝없이 펼쳐지고, 백두대간의 조망은 장엄하게 다가온다. '바람의 언덕'으로 불리는 매봉산의 풍력발전기는 이국적인 풍경을 빚어내는 반면 방송국 중계소와 통신사 기지국은 흉물처럼 볼썽사납다.

거센 바람이 땀을 흘려낸다. 정상에서 두문동재 방향으로 내려서면 중함백산과 금대봉, 은대봉 줄기가 선명하게 다가온다. 정상 바로 아래 위치한 헬기장을 지나면 가파른 내리막 길이다. 아이젠을 다시 끼우고 눈 반 얼음 반의 미끄러운 길을 내려가자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산다는 주목 군락지가 펼쳐진다. 상고대가 부족하지만 주목 여러 그루가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고고한 자태를 뽐낸다. 상고대가 만발하면 천년의 세월과 함께하는 마법의 세상을 연출하는 주목군락지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특별 관리되고 있다.

이따금 나타나는 폭신폭신한 눈발과 나뭇가지에 핀 상고대가 코발트색 하늘과 어우러져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눈밭에서 뾰드득 소리를 들으며 비탈길에 올라서면 중함백(1,505m)이다. 화려한 눈꽃은 보이지 않았지만 맑고 찬 공기가 폐부를 씻어준다. 잔설이 있는 중함백을 내려가면 조망이 좋은 바위 전망대를 만난다. 숲 속에 가려 있던 은대봉과 금대봉, 백운산, 민둥산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산줄기들이 근육처럼 힘차게 뻗어 내려가는 모습이 장관이다. 완만한 능선 길을 걷다 보면 두문동재, 적조암, 샘터로 갈라지는 제2썸터와 만난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정암사의 암자인 적조암으로 내려선다. 전나무, 소나무, 박달나무, 피나무, 자작나무가 길동무를 해준다. 썸터에서 오솔길과 계곡길을 2.2km 정도 터벅터벅 내려오면 414번 지방도로와 고한읍민체육공원과 만난다. 함백산 적조암 들머리인 이곳에서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 하나인 정암사까지는 도보로 20분 거리다. 만항재까지는 1.7km 거리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❶ 만항재 바로 밑에 있는 함백산 산행 들머리. 강원도의 정선군, 영월군, 태백시가 맞닿은 지점의 만항재는 해발고도가 1천330m에 달한다.



❷ 만항재에서 산길을 따라 1.5km가량 걸으면 태백선수촌 삼거리와 만난다. 이곳에서 왼쪽의 비탈길은 임도이고, 오른쪽은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다.

❸ 밧줄과 계단에 의지해 오르는 길은 다소 힘이 든다. 하지만 태백선수촌 삼거리에서 정상까지는 고도차가 300m도 안된다.



❹ 함백산 정상에 서면 백두대간의 장쾌한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방송국 중계소와 통신사 기지국이 시야를 어지럽힌다.



❺ 하얗게 꽃을 피운 상고대는 볼 수 없었지만 순백의 눈길과 코발트색 하늘이 겨울 산행의 정취를 느끼게 했다.



❻ 함백산 정상에서 주목군락지를 지나 오르막을 걸으면 중합백(1,505m)이다. 함백산은 안내 표지판이 잘 돼 있어 길 잃을 염려는 없다.

❼ 암반 지대의 전망대에 올라서면 은대봉과 금대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❽ 적조암으로 향하는 하산길에는 사스레나무와 활엽수림이 우거진 숲을 만난다.



❾ 414번 지방도로변에 있는 함백산 적조암 들머리. 도로 아래로 내려가면 정암사가 있고, 위쪽으로 오르면 아생화 축제로 유명한 만항마을과 만항재에 닿는다.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숲·계곡 즐기며 꿀맛 휴식’에 안성맞춤

산과 골이 깊은 강원도에서도 가리왕산(1,561m)은 전국 제일의 천연활엽수 지대로 유명하다. 이곳에 자리잡은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은 계곡과 숲길이 아름답기로 이름났다.



1, 2 가리왕산의 가장 깊은 골짜기인 남동쪽 산자락에 위치한 산림문화휴양관.
3 숲체험관에서는 목걸이, 숯대 등을 제작하는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4 오토캠핑장의 데크 사이에 쥐똥나무가 있어서 오뎅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가리왕산은 자작나무, 구상나무, 마가목, 물푸레나무, 옻나무, 가래나무, 고로쇠나무 등 각종 수목이 울창한 숲을 이뤄 원시의 기운이 넘쳐난다. 상봉, 중봉(1,443m), 하봉(1,380.3m) 등 봉우리 3개가 원만하게 이어져 있으며, 능선을 따라 계속되는 고산의 설경은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감동을 안겨준다. 골짜기마다 기암괴석 사이로 맑은 계류가 힘차게 흘러내리고, 약초와 산나물이 풍부하다. 고대 맥국(鎭國)의 갈왕(葛王)이 예국의 공격을 피해 은둔했던 곳이라 하여 갈왕산(葛王山)이라고 불리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가리왕산(加里王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가리왕산 트레킹의 베이스캠프인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은 남동쪽 산자락에 있다. 정선 회동계곡의 맑은 물이 주변 숲과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광을 보여준다. 휴양림 매표소 바로 옆에는 청량한 냉풍과 자연동굴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는 얼음동굴이 있다. 한여름에도 4도의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석회암 절리동굴이다.

안전 문제로 목책 울타리가 쳐진 얼음동굴을 지나면 왼쪽으로 아늑한 분위기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나온다. 산자락 아래 야영데크 20개가 들어서 있고, 쥐똥나무가 울타리처럼 각 장소를 구분해 놓았다. 데크은 좁지 않고 옆 공간은 제법 넓다. 캠핑장 바로 옆에는 샤워실과 취사장이 마련돼 있다.

오토캠핑장에서 계곡을 끼고 있는 도로를 따라가면 숲체험관과 마주친다. 숲체험관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숲과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해설 프로그램과 목걸이, 숯대, 열쇠고리, 나무문패, 손수건(천연염색) 등을 만드는 산림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숲체험관 앞 계곡과 맞은편 산기슭에는 야영장과 야외강의실, 놀이시설이 자리한다.

매표소에서 1.4km를 가면 심마니들이 약초를 캐기 위해 터를 잡았던 곳에 산림문화휴양관 1동(14실)과 숲속의 집 10동이 웅기증기 모여 있다. 산림문화휴양관은 5인용 8실, 6인용 3실, 8인용 3실이 있고, 방마다 화장실 겸 샤워장, 침구, TV, 냉장고, 인덕션, 침구와 식기류가 갖추어져 있다. 숲속의 집은 4인용 3동, 5인용 2동, 8인용 4동이 있다. 원양새, 소쩍새, 종달새 등 숲속의 집 7동은 산림문화휴양관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 짐을 가지고 산막으로 걸어서 올라가야 닿는다.

자연휴양림 내에는 계곡을 따라 숲 속으로 산책로가 나 있다. 호젓하게 난 산책로는 걷는 운치가 있고, 곳곳에서 만나는 ‘새는 왜 지저귀까요?’, ‘우리 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 ‘나무의 피부를 만져보세요!’ 등의 안내판은 숲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탈진 곳에 켜켜이 쌓아 올린 돌탑은 색다른 볼거리다. ⑦



Tip

이용 방법과 요금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은 가리왕산 등산객과 여름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객실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 체크아웃 시간은 낮 12시다. 침구, 식기, 밥술 등 객실 내 비품은 투숙 정원에 맞춰져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9월부터 주말과 법정공휴일 이용은 선착순 예약제에서 추첨제로 전환했다. 객실 요금은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주말(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과 비수기가 다르다.
숲속의 집 4인실 6만7천원/3만7천원(성수기와 주말/비수기 평일), 5인실 8만5천원/4만6천원, 8인실 12만원/6만9천원
산림문화휴양관 5인실 7만7천원/4만2천원, 6인실 9만4천원/5만3천원, 8인실 9만4천원/5만3천원
오토캠핑장 9천원 야영 데크 7천원

문의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033-562-5833

교통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영동고속도로 새말 나들목에서 평창 방면으로 우회전해 42번 국도를 따라 안흥, 방림삼거리, 평창, 미탄을 거쳐 약 1시간 30분 정도 가면 평창과 정선의 경계인 비행기재 터널이다. 터널과 광화교를 지나 솔치삼거리에서 좌회전해 424번 지방도로를 따라 용탄과 회동마을을 지나면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매표소가 나온다.

서울 → 정선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 직행버스 1일 9회 운행
정선 → 휴양림 정선종합터미널 시내버스 1일 8회 운행